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2. 3. 16.(수) 10:00	배포일시	2022. 3. 16.(수) 09:30
담당과장	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투자팀 장인주 (02-6050-2518)	담당자	박상원 사무관 swpark@moef.go.kr

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,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현장방문

-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'22.3.16.(수) 09:00 서울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찾아 현장점검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
< 현장 방문 개요 >

- 일시: '22.3.16.(수) 09:00~10:30
- 장소: 서울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
- 참석: 기획재정부 제1차관,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
자동차연구원 및 자율주행 기업* 관계자

* 42DOT(포티투닷), 토르드라이브, 파트리지시스템즈

- 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레벨3¹⁾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동시에 레벨4²⁾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을 본격화한 상황에서,

1) 한정된 상황(고속도로 등)에서 자율주행 가능, 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 (차선이 불분명한 공사현장 등)은 운전자 운행 필요

2)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 개입없이 운전 가능

- '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애쓰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, 정책적 제언을 듣고자 이루어졌음

□ 이억원 차관은 관제실에서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현황*과 현재 실시 중인 유상운송서비스**에 대한 설명을 듣고,

* 도심도로에 조성된 세계 유일의 5G 융합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통신 및 V2X 인프라, 자율주행 전용표지판 등을 보유하고 24시간 운영 중

** 2개 구간을 총 4대의 자율차가 운행 중이며, 승객이 구간내에서 승하차지점을 자유롭게 선택가능(이용요금: 2000원/회)

○ 실제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차를 스마트폰 어플로 호출하여 탑승하고, 도로를 주행하면서 시스템 작동 체계와 운영방식*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

*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카메라, 레이더,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 및 상대차의 속도와 차간 거리 등을 예측하여 자율주행

□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억원 차관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자 통신,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들과의 수평적 협업을 기반으로 미래 핵심산업이 될 자율주행 산업의 혁신성과 확장성을 언급하면서, 정부의 육성 의지와 방향을 설명함

① 우선, '22년 2,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지에측센서 등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음

- 특히, 센서, 라이다 등 자율주행 핵심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1.1조원 규모의 범부처 R&D사업이 향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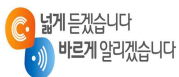
② 또한,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성 평가 기준 및 보험체계를 '24년까지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음

* 세계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('19.12), 레벨3 보험체계 마련('20.4)

- ③ 끝으로,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*, 규제자유특구(세종, 광주) 운영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함

* 자율주행차의 연구·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, 현재 서울 상암, 광주, 세종 등 7개 지구 운영 중

- 아울러, 자율주행산업의 혁신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 중인 기업인 및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,
- ‘자율주행산업협회’가 공식 출범(“21.10.13)하는 등 자동차와 통신, 플랫폼 업계가 협업을 강화해나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함
- 이덕원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자율주행 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하였음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 고

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개요

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('20.12월 지정, 국토부 고시)

- 위치 : 마포구 상암동
- 면적 : 6.2km²
- 지역 : 상암DMC, 노을·하늘·난지천·한강·평화의공원 등
- 도로연장 : 31.3km(24개 도로)



- 상주인구 : 55,727명(유동인구 약 20만명)

※ 상암자율주행 테스트베드('19.8월 조성) →
공원, 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하도록 확장('20.12월)

□ 주요특징 및 특화전략

- (특징) 도심도로에 조성된 세계 유일의 5G 융합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
- (전략) 여객, 개인간 화물거래, 신선식품 배달서비스 등 실생활에서의 자율차 주행 상용화 촉진

□ 주요 인프라(자율주행 협력인프라)

- (통신) 세계최초 5G 상용망* 등 모든 V2X** 통신망 지원
 - * 5G 기지국 약 30개소(SK텔레콤)
 - ** V2V(차량과 차량간 통신), V2I(차량과 인프라간 통신)을 총칭하는 약어
- (V2X 인프라) 교통신호 등 총 70식 C-ITS 인프라 구축
- (교통안전) 자율주행 전용표지판(7개소) 및 노면표시(약 3.3km) 신설
- (편의시설) 전기차 충전소, 버스(3면)·승용차(8면) 주차공간 확보